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언어의 기호체계가 자의적이라는 점을 이해한 프랑스의 철학자이다.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차연의 철학’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차연이란 ‘차이’와 ‘지연’을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차연이란 어떤 단어가 단어들 간의 차이에 따라 정의되고, 그 단어들 역시 또 그와 다른 단어로 이루어진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 연쇄 작용 때문에 그러한 정의는 의미의 가능성의 지연으로 이어져 사실상 의미의 가능성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언어학에 나타나는 ‘음성중심주의’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서 음성중심주의란 음성언어를 본래적인 언어·살아있는 언어로, 문자언어를 일탈적인 언어·죽어있는 언어로 간주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소쉬르의 언어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헤겔의 변증법적 차이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 모두 음성중심주의에 휘말리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음성중심주의를 급진적으로 계승한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사고방식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데리다는 이러한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서구철학에 대한 구조 해체를 주장하였다.

데리다는 음성중심주의가 서양을 지배하게 된 것이 ‘로고스중심주의’의 만연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로고스중심주의는 로고스(logos)라는 개념이 서구의 사회, 문화, 사상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해왔음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로고스란 ‘이성, 목소리’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로고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언어, 논리뿐 아니라 이성, 질서, 합리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표현이요 불변의 본질적, 절대적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음성언어는 목소리를 통한, 즉 이성에 기반을 둔 것이지만, 문자언어는 로고스 외적인 것을 통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로고스중심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곧 음성중심주의도 ㉡더불어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러한 로고스중심주의를 비판하기 위하여 데리다는 어떤 결정적 의미의 현존이라는 추정적 관념이 사실은 환상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이해하려면 그가 만들어낸 ‘대리보충’이라는 표현을 알 필요가 있다. 데리다의 논리에 따르면, 중심은 구조 속에 현전*하는 동시에 구조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이해되며, 중심과 구조의 관계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는 서열적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 대립에서 한쪽 항목은 진리를 구현하고 있는 ㉢원본(기원)으로 이해되고 다른 한쪽 항목은 어슴푸레한 ㉣사본(흔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기원이란 흔적에 의해서 대리되고 보충되는 ‘이차적 첨가물’이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나 ‘음성언어’와 대비되는 ‘문자언어’, ‘화이트칼라’와 대비되는 ‘블루칼라’와 같이 구조의 필요에 의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본들이 결국 그것이 구조를 지탱해주는 핵심임이 드러나면서 이항대립 자체를 흔들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리보충의 논리이다. 즉, 해체적 독해에 의해 폭로되는 대리보충의 논리는 글에서 의미가 생산되는 과정을 전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리보충은 원래의 것을 보충하는 원본의 순수성이 훼손된 형태를 말하지만, 데리다는 순수한 원본이란 일종의 환영이며 대리보충의 원리가 더 핵심적이라고 말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대리보충의 개념을 차연의 개념과 연관 지어 생각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서구적 사유는 흔적의 대리보충을 망각한 채 기원이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현전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즉 서구적 이성의 사유의 ‘올타리’ 안에서는 대리보충이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자의 대리보충은 서구적 사유 ‘바깥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대리보충은 서구적 이성이 기원의 현전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그 사유 자체 안에는 속하지 않는다. 또한 기원은 흔적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만 도래하므로, 기원의 현시는 흔적에 의해 방해 받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흔적이라는 대리자 뒤로 기원의 도래는 무한히 연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원은 흔적 뒤에서 도래한 것이므로 사실상 기원의 자격조차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는 결국 기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원의 진실은 비기원인 셈이다. 이러한 대리보충의 논리를 보이는 일은 서구적 사유의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폭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해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해체는 또한 서구적 사유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서구적 사유의 숨은 ‘근거’를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 현전성 : 존재자의 존재, 그리고 그것의 존재 의미가 눈앞에 자리한 사물처럼 파악되는 특성

22.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중심주의자는 문자언어를 부정적으로 보지만, 해체주의자는 음성언어를 부정적으로 본다.
- ② 차원이 어떤 단어의 의미가 무기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③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서양의 문자 체계이다.
- ④ 해체를 통해서 서구적 사유의 현전성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서구적 사유의 존재 근거는 서구적 사유 밖에 존재한다.

24. 윗글과 <보 기>의 내용에 근거하여 데리다를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데리다는 차원과 기호적 차이들 사이의 관계에 어떠한 종류의 인과적 구조를 적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다시 말해 차원을 문자적 차이들을 구성하는 근원적 원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이해는 이미 언어적 체계성에 강요당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데리다는 자신의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인과적으로 이해할 것을 끊임없이 금지하고 있다. 데리다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다. 문자적 차이들을 전개시키는 모종의 전체성의 운동(차원)이 있지만, 이 운동 자체는 문자에 의해서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① 데리다는 언어의 의미가 이에 선행하는 다양한 경험들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 ②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음성중심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그와 동급의 주장에 불과하다.
- ③ 데리다는 원본과 사본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 ④ 데리다는 해체주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
- ⑤ 데리다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23. 자크 데리다가 부정할 만한 주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 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텍스트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란 없다.
- ㄴ. 도를 도라고 일컫는 순간, 도는 이미 도가 아니게 된다.
- ㄷ. 재빨리 지나가는 음성의 덧없는 투명성은 낱말과 표현된 의미와의 동화작용을 촉진시킨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5. 데리다의 입장에서 볼 때, <보 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프랑스의 소위 ‘로고스중심주의’ 철학자 루소에게는 ‘바랑 부인’이라는 애인이 있었다. 그는 바랑 부인을 ‘어머니’라고 불렀으며, 그녀를 보지 못할 때 더 애착이 생긴다고 말하였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바랑 부인의 집에서 살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그녀를 보지 못할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에게 애착심을 가졌다.”

루소는 지금 여기에 바랑 부인이 있다는 것보다는 그녀가 쓰던 침대 같은 물건들에 관심 있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랑 부인을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바랑 부인을 통해서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났던 것이다.

- ① 루소의 사고방식과 행동에서 해체의 특성이 드러난다.
- ② 바랑 부인의 자취는 바랑 부인 그 자체보다 우월하다.
- ③ 바랑 부인이 쓰던 침대는 바랑 부인을 대리보충하는 존재이다.
- ④ 루소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에서 차연 작용이 발생한다.
- ⑤ 루소가 그녀의 자취를 더 좋아한다는 점은 로고스중심주의와 대치된다.

26. ㉠과 ㉡을 대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근본적인 것 | 부차적인 것 |
| ② 현전성이 결여됨 | 현전성이 충분함 |
| ③ 진리를 구현하는 것 | 구조를 지탱하는 것 |
| ④ ㉡에 의해 도래되는 것 | ㉠의 대리자 |
| ⑤ 인식 범위 안에 존재함 | 인식 범위 밖에 존재함 |

27. <보 기>의 설명을 근거로 할 때, 불완전동사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 중에서는 어미가 제한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동사들을 ‘불완전동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의 기본형 ‘더불다’는 ‘더불어’, ‘더불고’ 정도로만 활용되므로 ‘더불다’는 불완전동사이다. 단, 어떤 동사가 몇 개의 특정한 활용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이를 불완전동사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얼다’의 경우, 그 어간에 청유형 어미 ‘-자’를 연결하여 쓸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얼다’가 유정명사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며, 이처럼 의미상의 제약 때문에 일부 어미를 사용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불완전동사로 볼 수 없다.

- | | |
|------------------------------|-------------------------|
| ① ‘나에게 다오’의 달다 | ② ‘너를 데리러 가’의 데리다 |
| ③ ‘해바라기가 시들어 버렸다’의 시들다 | ④ ‘글을 보고 대경하여 가로되’의 가로다 |
| ⑤ ‘선생님을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렸다’의 바래다 | |

정답

[22~27] 철학(데리다의 해체주의)

22. ⑤

23. ④

24. ②

25. ②

26. ①

27. ③

오르비 IMIN 633077